

3부

칼 용의 개성화의 영적 여정으로서의

중독 익명의 모임 12단계

3부: 칼 용의 개성화 이론으로 보는 A.A. 12단계의 영적 여정

제 1 장 영적 체험에 대한 영적 해석

『빅 북(Big Book)』, 즉 『알코올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에서 빌 윌슨(Bill Wilson)은 칼 용이 롤랜드 해저드(Rowland Hazard)에게 설명했던 영적 체험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알코올중독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 부르는 것이 때때로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거대한 감정적 재배치와 재정렬의 본질을 지닌
다.*

한때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생각, 감정, 태도는 한쪽으로 밀려나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동기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 Anon, 1991a, p. 27

빌 윌슨은 용이 말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1934년 12월 타운즈 병원(Towns Hospital)에서 극적인 영적 체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A.A.에서는 "영적 체험(spiritual experience)"과 "영적 각성(spiritual awakening)"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극적 체험이 아니라, 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저자가 알코올중독에 대해 글을 쓰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회복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회복자의 증언: 명령의 목소리

다음은 한 A.A. 회복자가 직접 전한 경험담이다.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이 나를 공포에 빠뜨렸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들어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했고, 아침 세 시에 깨어났다. 그리고 매우 분명한 결정을 내렸다. 찬장에 있던 술병과 공원에서 가져온 진을 꺼내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들자는 것이었다.

나는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바로 그 순간, 아주 조용하지만 확고한 명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대에 누워 있어. 하지 마라."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하겠다고 결심했다. 발을 다시 내리려는 순간, 정확히 같은 음성, 같은 강도, 같은 명령이 들렸다.

"침대에 누워 있어, 도움을 요청하라."

그 목소리는 동시에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내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매우 기묘한 경험이었다.

— A.A. 회원의 개인 진술, 2014년 8월 24일

명령의 목소리에 대한 응적 해석

- 이것은 초자아(superego)의 금지 명령이 아니다.
- 초자아는 이미 도덕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 이 목소리는 자기(Self)의 개입 가능성으로 이해된다.

- 자아(ego)의 통제를 벗어난 더 깊은 심리적 층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중독에는 신체적·심리적 차원을 넘어선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목소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조현병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중독에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 바로 영적 차원이다. 이 목소리는 자아의 방어가 완전히 무너진 위기의 순간, 무의식의 더 깊은 층위—융이 "자기"라 부른 전체 정신의 중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 2 장 융의 임상 사례: 극한에서의 영적 개입

융은 알코올중독자들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영적 경험의 중요성을 유사하게 지적한다. 그는 『심리학 전집(Collected Works)』 3권에서 두 가지 인상적인 사례를 기술한다.

첫 번째 사례 — CW 3, 305 항

첫 번째 사례는 점진적 마비(progressive paralysis)를 겪던 한 환자에 관한 것이다. 그는 자살하려고 결심했고,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빛이 나타나 그를 방 뒤쪽으로 강하게 내던졌다.

(CW 3, para. 305)

두 번째 사례 — CW 3, 306 항

두 번째 사례는 "정신병자"라 불린 한 인물에 관한 것이다. 그는 삶의 극단적 피로로 인해 흡입가스로 자살하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가슴을 강하게 붙잡는 거대한 손의 느낌을 경험했고, 그 힘이 그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는 그 환각을 너무도 선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다섯 손가락이 자신을 붙잡았던 자리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었다.

(CW 3, para. 306)

두 사례의 공통 구조

자살 충동 (자아의 소멸 욕구)

↓

외부적 힘의 개입 (빛, 손의 감각)

↓

생명의 방향으로 역전 (치유의 시작)

*융의 해석: 자아가 파괴적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자기(Self)라는 더 큰 힘이 생존의 방향으로 개입한다.*

핵심 개념 ①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충동 조절의 문제가 아니다.

중독의 뿌리에는 존재론적 갈증—영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영(Spirit)을 갈망하는 심리가 알코올이라는 대리 충족을 향하는 것이다.

융이 롤랜드 해저드에게 말했듯, 영적 변환만이 알코올의 인력(引力)을 넘어설 수 있다.

핵심 개념 ②

A.A.의 "바닥" = 융의 "자아의 해체"

자아의 붕괴는 곧 개성화의 문이다.

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자기(Self)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의 열림을 의미한다.

즉, 영적 각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제 3 장 자아의 붕괴와 치유의 역전: 융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융적 관점에서 보자면, 앞서 기술한 경험들은 자아(ego)의 죽음에 대한 은유로 이해될 수 있다. 자아가 소멸의 문턱에 이를 때, 참된 자기(Self)가 그 공백 속에서 탄생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사례는 A.A.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그 사례에서 자살적 충동을 만들어낸 본능적 에너지가 이제는 진정한 자기(Self)가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려두는 방향으로 역전된다.

융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개인적 통제를 벗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ego)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병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파괴적 힘들이 뒤집혀 치유의 힘이 되는 것과 같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악마적 힘이 선한 힘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아의 한계와 자기(Self)의 출현 — CW 11, 534 항

"진짜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계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숨겨진 심연으로부터 그를 대면하기 위해 솟아오르는 낯설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자아가 아니며, 따라서 그의 개인적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의 심리적 삶의 근원을 다시 접하게 되며, 이것이 치유의 시작을 의미한다."

— C.G. Jung, CW 11, para. 534

영적 체험이 금주를 이끄는 이유 — CW 11, 536 항

"그러한 경험은 이전의 고통을 상쇄하는 고통을 준다.
이제부터는 빛이 혼란을 뚫고 비추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자연적 차원에서의 갈등 속에 갇혀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도덕적 분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지 않다."

— C.G. Jung, CW 11, para. 536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한 하나의 융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위기의 순간, 자아는 독립적인 심리적 에너지와 분리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진정한 자기(Self)가 자살적 소멸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에너지는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통제를 벗어난다. 일단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면, 자아는 자신의 더 작은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자아는 점차 더 큰 힘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그 힘은 자아보다 더 크며, 자아는 그 더 높은 힘에 종속되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전통적인 정신의학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신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통찰을 떠올릴 수 있다.

"하늘과 땅에는, 호레이쇼,
네 철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 William Shakespeare, 『햄릿(Hamlet)』, 1막 5장 167-168행

자기(Self)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반드시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의 생존 모드일 수 있다. 자아가 소멸되려 할 때, 자기(Self)가 개입한다. 결국 자아가 자살을 결심하는 극한의 순간에도, 진정한 자기(Self)는 삶의 편에서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명료함의 순간들"이라 부를 수 있다.

— 그러한 한 순간이 빌 윌슨으로 하여금 또 다른 알코올중독자에게 손을 내밀게 했고, 그 결과 A.A.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 4 장 빌 윌슨, 애크런을 방문하여 닥터 밥을 만나다

1935년 5월, 빌 윌슨은 자신이 관여했다가 실패한 회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 애크런(Akron)으로 향했다. 애크런은 고무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빌은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었다(Anon, 2005, p. 65). 이 회사는 오늘날 내셔널 러버 머시너리 컴퍼니(National Rubber Machinery Company)로 알려져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빌의 계획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주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그곳을 떠나야 했다. 빌은 "몹시 낙담한 채"였다(Anon, 2011, p. 103).

그는 거의 무일푼이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날은 마침 어머니의 날(Mother's Day) 전날이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의 유년기 상처—아버지에게, 그리고 이후 어머니에게 차례로 버림받았던—와 연결되는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Cheever, 2004, p. 21).

빌은 호텔 바의 흥겨운 분위기에 강한 유혹을 느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회상한다(Anon, 2011, p. 103). 빌이 호텔 로비를 서성이며 내면에서 경험한 것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에서 묘사한 것과 유사한 두 마음 상태의 충돌이었다.

호텔 로비에서의 심리적 구조

원시적 파충류 뇌 (무의식적 충동)

vs.

인간의 신피질 (의식적 판단)

혹은 보다 깊은 층위에서:

자아(ego) vs. 진정한 자기(Self)의 싸움

호텔 로비의 결정적 순간

빌은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A.A.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전체를 인용할 가치가 있다.

방 한쪽 끝에는 지역 교회들의 유리 덮인 안내판이 서 있었다.

아래층 로비에는 매력적인 바가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면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외로운 주말을 보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는 술을 마실 수는 없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 희망을 품은 채 한 병의 진저에일을 마시는 것은 어떨까?

그 후에 떠나면 되지 않을까?

결국 그는 이제 6개월이나 금주하지 않았는가?

어쩌면 그는 "세 잔까지만"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다시 앉아지고 있었다.

노년, 광기 어린 정신 붕괴—그 첫 잔을 떠올렸다.

몸을 떨며 그는 물러섰고, 벽을 등지고 섰다.

음악과 떠들썩한 소리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말해야 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무엇이 더 있을까?"

하지만 나에게서는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저 알코올중독자들은?

이 도시 어딘가에는 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마침내 명료해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안내판에서 무작위로 한 교회를 선택하고,
전화 부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 Anon, 2011, p. 103

호텔 로비 장면의 융적 분석

1 회귀 충동과 원형적 상처

- 낙담과 실패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버림받음이라는 원형(archetype)을 활성화한다.
- 어머니의 날이라는 날짜 역시 유년기의 상처와 공명한다.
- 자아는 이 원형적 고통에 대한 즉각적 해결로 알코올을 합리화한다.
→ "세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2 두 마음의 갈등과 자기(Self)의 등장

- 무의식적 충동(파충류 뇌)과 의식적 판단(신피질)이 충돌한다.
- 공포가 올라오는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붕괴 기억의 활성화다.
- 융적으로 이것은 자아 대 자기(Self)의 싸움이다.

3 기도와 초월 기능(Transcendent Function)

- 기도 직후 "정신이 명료해진다"는 서술은 융의 초월 기능—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것—의 전형적 작동을 보여준다.
- 갈등이 극대화된 순간, 새로운 제3의 길이 열린다.
- "책임"이라는 단어의 등장: 리비도—심리적 에너지—가 자기 파괴에서 타인 지향으로 전환된다.

4 집단이 아닌 개인을 향한 결단

- 빌은 "집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려는 결단을 한다.
- 이것이 이후 A.A.의 핵심 구조가 된다:

"한 알코올중독자가 다른 알코올중독자를 돕는다."

- 융이 집단을 경계하면서도 A.A.를 긍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집단이 개인을 삼키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을 돕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헨리에타 세이버링과 닥터 밥, 그리고 A.A.의 탄생

빌 월슨은 결국 성공회 목사 월터 텍스(Walter Tunks)와 연결되었다. 텍스는 최근에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는 빌을 또 다른 알코올중독자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인을 알고 있었다(Kurtz, 1991, p. 27). 텍스는 지난 1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열 명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빌에게 건네주었다.

빌은 그 목록에서 세이버링(Seiberling)이라는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세이버링 가문은 굿이어 타이어 회사(Goodyear)와 연관된 대기업 집안이었다. 이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알코올중독자로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사회적 위치에서 보면 커다란 굴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빌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헨리에타 세이버링(Henrietta Seiberling)과 연결되었다. 그것이 운명적인 전화였다.

헨리에타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굿이어 타이어 회사 소유주의 아들인 남편으로부터 독립하여 거대한 저택 입구의 작은 오두막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옥스퍼드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같은 그룹의 동료인 밥 스미스 박사(Dr. Bob Smith)가 만성적인 음주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닥터 밥을 염려하던 헨리에타는 결국 빌과 밥을 연결해 주었다(Anon, 1991b, p. 137). 헨리에타는 처음에 빌이 닥터 밥이 아니라 닥터 밥의 아내 앤(Anne)을 먼저 만나게 했다고 전해진다. 빌은 분명히 "또 다른 회복된 알코올중독자"로 여겨졌을 것이다(Kurtz, 1991, p. 28). 밥의 아내 앤은 남편이 다음 날 저녁 빌을 15분 동안 만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첫 만남: 15 분이 6 시간이 되다

닥터 밥은 심한 숙취로 인해 "떨고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였다. 그러나 예정된 15분은 6시간 이상으로 이어졌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알코올중독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서로 깊이 나누었다(Ibid.).

첫 만남의 핵심 원리

회복은 "설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경험의 공유"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A.A.의 핵심 원리다: 동일시(identification).

용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공명이 이 순간 작동하고 있었다.

빌에 따르면, "첫 만남 후 3~4주 뒤, 닥터 밥은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린 의학 학회에 참석했다"(Anon, 2005, p. 70). 그 여행에서 닥터 밥은 폭음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학회에서 발표한 강연은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그 연설로 인해 그를 둘러싼 모든 비판이 일단 종식되었다(Anon, 2011, p. 104).

이것은 1935년 6월 빌과 밥이 애크런 시립 병원(Akron City Hospital)에서 첫 외부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 날짜는 공식적으로 알코올중독자 모임(Alcoholics Anonymous)의 창립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뉴욕의 총무 사무국(General Service Office)에는 6월 17일 그 학회에서 찍힌 닥터 밥과 동료들의 사진이 남아 있다. 닥터 밥이 그 학회 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술을 마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닥터 밥은 애크런으로 돌아온 뒤 마지막 음주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커츠(Kurtz, 1991)는 빌이 6월 10일로 기억했지만, 아마도 6월 28일이 더 정확한 날짜일 것이라고 지적한다(p. 322, n. 22).

핵심 A.A. 탄생에서 닥터 밥의 재발이 갖는 의미

A.A.의 탄생은 완전한 회복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재발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구조화되었다.

이것은 A.A.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서는 사람들의 구조"임을 증명한다.

1935년 6월 말, 빌과 밥은 애크런 시립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첫 번째 고전적인 알코올중독자 후보"에 대해 문의했다(Anon, 2011, p. 104). 간호사는 "진짜 구제 불능의 중증 알코올중독자"가 있는데, 최근 술에 취해 두 명의 간호사를 폭행하여 병원에서 퇴원 조치되었다고 전했다(Kurtz, 1991, p. 37). 이를 뒤, 빌과 밥은 애크런 시립 병원에서 그 "대상자"를 방문했다. 그는 도시 의회 의원이자 교회 집사였다(Anon, 2011, pp. 104-105). 그들은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알코올중독의 어려움을 나누었고, 영적 체험이 자신들을 어떻게 금주 상태로 이끌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했다.

"아니요,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집사였고, 교회 남자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네 달 동안 여섯 번이나 술에 취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회복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Anon, 2005, p. 72

다음 날 빌과 밥은 그를 다시 방문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자신의 삶을 창조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맡겼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Anon, 2011, p. 105). 이 인물은 A.A.의 세 번째 금주자로 역사에 기록된다.

빌은 뉴욕에서 옥스퍼드 그룹의 후원 아래 알코올중독자들과 계속 활동했다. 그러나 빌에게는 단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알코올중독자를 돕는 것. 반면 옥스퍼드 그룹은 세계 전체를 구원하려 했다. 이 목적의 차이가 결국 분리를 불러왔다. 1937년 1월, 빌은 닥터 밥과 함께 옥스퍼드 그룹에서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했다. 이것이 훗날 Alcoholics Anonymous(알코올중독자 모임)로 알려지게 된다.

결정적 통찰 — 빌이 깨달은 것

"술을 끊기 위해 술을 끊으려 하면 실패한다.

다른 알코올중독자를 돕기 위해 움직일 때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리비도(libido)의 방향 전환이다:

자기 파괴 충동 → 관계적 헌신

이 지점이 융의 개성화 과정과 정확히 만나는 순간이다.

제 6 장 빅 북의 탄생과 12 단계의 성문화

빌 윌슨, "빅 북(Big Book)"을 쓰다

1938년 12월, 빌은 알코올중독자 모임에서의 회복 경험과 그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책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 책이 훗날 널리 "빅 북(Big Book)"이라 불리게 된다.

빅 북은 A.A.의 "성경"으로 불린다. 이 책은 12단계를 설명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술하며, 가족과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들이 금주를 유지하며 회복하는 실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쟁

빅 북 집필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 중 하나는 12단계에서 "Go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였다. 이 표현은 11단계까지는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때도 "자기 이해에 따른 하나님(God of one's own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A.A.의 문을 더 넓게 열기 위한 조치였다. "God"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불가지론자(agnostic)와 무신론자(atheist)들을 포함하기 위해서였다.

흥미롭게도, 역설적으로 3단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표현은 사실

상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구는 교리적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하나님 이미지—즉 자기(Self)의 상징적 표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책 제목을 둘러싼 논쟁

책의 제목으로는 여러 안이 제시되었다.

후보 제목들

- Dry Frontiers (건조한 변경)
- The Empty Glass (빈 유리잔)
- The Way Out (탈출구) — Anon, 2005, p. 166

최종 채택: 『Alcoholics Anonymous』

뉴욕 그룹의 한 구성원이 그 그룹 자체의 이름을 따서 제안한 것이다 (Anon, 1979, pp. 114-115).

빌은 이 책을 개인 소유로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붙인 운동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토론의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겸손하게 인정했다(Anon, 2005, p. 165). 닥터 밥은 "나는 집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Kurtz, 1991, p. 331, fn. 31), 빌은 세 달 동안 거의 매일 밤을 닥터 밥의 가족과 함께 애크런에서 보내며 이른 새벽까지 음주 문제와 회복의 원리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닥터 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부엌 식탁에서 밤마다 나눈 토론이 12단계의 실제 집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Ibid.).

12 단계의 탄생 순간

커츠(Kurtz, 1991)는 빌이 처음 집필을 시도했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는 침대에 옆드려

누워 무릎 위에 나선형 공책을 올려놓고, 작은 연필로 힘주어 눌러 쓰지 않으면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다. 그는 페이지 상단에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How It Works)"라고 휘갈겨 썼다(p. 69).

그는 먼저 옥스퍼드 그룹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섯 개의 이야기를 썼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 설교적"이었다고 한다(Ibid.). 뉴욕의 알코올중독자들은 옥스퍼드 그룹의 네 가지 절대 원칙—절대적 정직, 절대적 순수, 절대적 비이기심, 절대적 사랑—이 A.A.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빌은 뉴욕과 애크런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합리화하는 알코올중독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하는" 무언가를 써야 했다.

빌은 긴장을 풀고 인도를 구했다.

놀라운 속도로, 그는 거의 자동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완전히 초안 형태였지만, 약 3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단어들은 계속 흘러나왔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멈췄다.

그는 12개로 번호를 매겼다. 그 숫자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최근에 들었던 열두 사도의 운율을 떠올렸다."

— Anon, 2005, p. 161

"절반의 조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완전히 몸을 내던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로 들어가라.

이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걸어온 단계들—이것이 우리의 회복 프로그램이다."

— Kurtz, 1991, p. 70 (빌 윌슨이 처음 기록한 문단)

12 단계의 수정 과정

그날 밤 기록된 12단계는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후 몇 가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3단계 원문: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기로 결단하였다."

→ 수정: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기로 결단하였다."

7단계 원문: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였다."

→ 수정: "겸손히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의식적 접촉을 향상시키고..."

→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구절 추가 (불가지론자·무신론자 포용)

빌은 거의 "우연히" 12단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내 로이스(Lois)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써 내려간 것을 읽어보니, 우리는 열두 가지 원칙을 발전시켰어—열두 단계야"(Anon, 1979, p. 113).

월슨은 이후 12단계가 자신도 알게 모르게 옥스퍼드 그룹의 가르침과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옥스퍼드 그룹의 전 미국 지도자였던 성공회 성직자 샘 슈메이커(Sam Shoemaker)에 대해 이렇게 썼다: "A.A.의 초기 구성원들은 자기 성찰, 결점 인정,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타인과 함께 일하는 원리들을 슈메이커에게서 직접 배웠다"(Anon, 2005, p. 39).

제 7 장 융적 관점에서의 분석: 개성화와 A.A.

분석 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 교리에서 심리학으로

이 표현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다.

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교리적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하나님 이미지, 즉 자기(Self)의 상징적 표현으로의 이동이다.

이 한 문장이 A.A.를 종교 단체가 아니라

심리-영적 회복 구조—즉, 종교가 아닌 영적 변환의 프로그램—로 만든 핵심 장치다.

분석 ② 12단계의 자동성과 심리적 구조화

빌은 "거의 우연히" 12단계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융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아의 의도적 구성이라기보다,

무의식의 구조가 의식 안에서 스스로 배열·결정화되는 순간에 가깝다.

이것은 종교적 계시라기보다는

심리적 구조화(structuring of psyche)에 가깝다.

분석 ③ 옥스퍼드 그룹과 A.A.의 차이: 도덕에서 경험으로

옥스퍼드 그룹은 도덕적 절대주의(절대적 순수, 절대적 정직)를 강조했다.

A.A.는 그것을 심리적 회복 구조로 재배열했다.

절대적 원칙 → 실천 가능한 단계

교리적 요구 → 경험의 공유

이 변형이 바로 12단계의 근본적 힘이다.

🗨️ 마지막 성찰 질문

A.A.의 "영적 각성"은 융이 말한 개성화의 대중적 형식일까요? 아니면 개성화의 집단적·종교적

변안(adaptation)일까요?

A.A.의 구조—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돕는 방식—는 융이 경계한 "집단화 (collectivization)"를 어떻게 피하고 있을까요? 개인의 변환과 집단의 지지 사이에서 A.A.는 어떤 균형점을 찾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각 개인의 자기(Self)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개성화적 접근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특정 신학적 틀 안에 머무르는 것인가요?

— 3부 끝 —